

민주당이 이겼다

수원·안산·증평 승리... 한나라 강릉·양산 당선

10·28 재보선 투표율 39%... 巨興 독주 제동

28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3곳에서 당선, 완승을 거뒀다.

(관련기사 4면)

재보선을 '정권 심판론'으로 규정 한 민주당은 이번 승리로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강력한 견제력을 확보한 반면 한나라당은 선거 패배의 후폭풍에 직면하며 정국 운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안산 상록을 지역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김영환 후보는 무소속 임종인 후보와의 단일화 실패를 극복하고 41.2%(1만4천176표)를 얻어 33.2%(1만1천420표)를 득표한 한나라당 송진섭 후보를 2천756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수원 장안에서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민주당 이찬열 후보가 49.2%(3만8천187표)

를 얻어 42.7%(3만3천106표)를 확보한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를 5천81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는 세종시 건설 수정 등의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정범구 후보가 41.9%(3만1천292표)를 얻어 29.6%(2만2천77표)를 얻은 한나라당 경대수 후보를 9천155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강릉에서는 한나라당 권성동 후보가 50.9%(3만4천834표)를 얻어 33.2%(2만3천97표)를 얻은 무소속 송영철 후보를 1만1천737표 차이로 여유있게 따돌렸다.

경남 양산에서는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박희태 후보가 38.1%(3만801표)를 얻어 34.1%(2만7천502표)를 획득한 민주당 송인배 후보에게 3천299표 차이로 신승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번 재보

궐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 정권의 독주·독선·실정에 대한 민심의 평가"라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민심을 받아들여 국정 운영에 대한 기초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2곳에서 승리를 거둔 만큼 완패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침울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 완승으로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지면서 여권에 대한 견제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재보궐 선거를 진두지휘 한 정세균 대표 체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주도의 야권 및 시민사회와의 통합 및 연대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 수원 장안 선거 승리로 손학규 전 대표의 위상 강화가 예상되며 경남 양산에서의 선전으로 친노 세력의 정치적 재기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



국향대전 알리는 '국화 송례문'

한 이번 국향대전은 다음달 22일까지 25일간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열린다.

'2009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막을 하루 앞둔 28일 어린이들이 가로 14m, 폭 6m, 높이 8m 크기로 재현한 국화 송례문 앞을 달리며 가을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만추(晩秋)의 심향(深香) 그리고 굴기(屈起)'를 주제로

/위직량기자 jrvi@kwangju.co.kr

뉴욕 김환기 화백 유해 신안으로

타계 36년만에 고향에

한국 근대 회화의 선구자 수화(樹話) 고 김환기 화백(1913~1974·사진)이 세상을 떠난 지 36년 만에 고향인 신안 안좌면(안좌도)에 영면한다. 신안군은 28일 "김환기 화백의 아들인 김화영(54·환기재단 이사장)씨와 오는 11월1일 현재 미국 뉴욕시립 공동묘지에 봉안돼 있는 김 화백 부부의 묘를 빠르면 내년께 안좌면으로 이장하는 협약을 맺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2013년 안좌면 읍동리에 문을 여는 '김환기미술관' 부지에 김환기 화백 부부의 묘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군은 오는 11월1일 김 이사장을 초청해 '나의 아버지 김



환기'를 주제로 강연회를 마련하고, 김 화백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국제미술제전을 광주(11월30일~12월6일·롯데갤러리), 서울(12월16일~21일·갤러리이앙)에서 잇따라 개최한다.

지난 1963년 미국에 건너간 김 화백은 뇌출혈로 뉴욕에서 세상을 떠난 뒤 그동안 뉴욕에 유해가 안치돼 있었다. 김환기 화백은 일본 니혼 대학 미술과를 졸업하고 귀국해 '아방가르드 연구소'를 여는 등 근대 한국 화단을 이끌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안=조남원기자 wncho@



학생독립운동 80주년 기념 시민건강 걷기대회

올해로 80주년을 맞이한 학생독립운동을 기념,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11·3 학생독립운동 80주년 기념 시민건강걷기대회'가 오는 11월 1일 광주 상무시민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고급 기념품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2009년 11월 1일(일) 오전 9시, 광주 상무시민공원 경기장 일원 (3km 코스)
- 참가 접수 및 문의: (062) 940-3706, FAX (062) 940-3705
- 주최: 광주시교육청, 광주학생독립운동 동지회,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광주광역시, 광주일보사
- 주관: 11·3걷기대회행사위원회, 광주광역시위원회, 호남대스포츠과학연구소
- 후원: 광신대학교
- 협찬: 동아제약

光州日報社

감염 우려 무더기 결석사태

광주 학교 신종플루 고심... 의사협 "휴교령 내려야"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서 신종플루 교내 감염을 우려한 학생들이 무더기로 결석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광주지역 일선 학교들에 따르면 최근 4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A 초교에서 이날 학내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73명의 학생(의심환자 포함)이 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는 1학년 4명이 신종플루 확진 환자 판정을 받고, 오는 31일까지 1학년만 부분 휴업중이다.

6학년 학생 2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광주 B초등학교도 이날 30명 안팎의 학생이 교내 감염 등을 우려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광주 모 초등학교 관계자는 "신종플루 확진환자 발생 학교 뿐 아니라 다른 학교의 경우도 교내 감염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석 학생중에선 실제 신종플루 의심증세를 앓고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만큼 학교 측에서 교내 감염을 우려해 결석하는 학생까지 막을 방법은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신종플루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고위험군 노인 등 4명이 또 숨겨 전국의 신종플루 사망자는 불과 사흘 새 13명이 추가돼 33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강제성을 띤 전면휴교 또는 휴업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플루 확산속도를 늦추기 위해 늦어도 다음 주부터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휴교는 시도 교육감이 학교 문을 닫게 하는 강제적인 조치이고, 휴업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임시로 수업을 쉬는 것으로 현재 200여곳의 학교에서 휴업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협뉴스

'지리산순한한우' 최고 명품 됐다

'지리산순한한우'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반열에 올랐다. 지리산순한한우는 28일 과천경마공원 특별행사장에서 개최된 '2009 브랜드 축산물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전국 200여개의 한우부



랜드를 물리치고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 10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 받았다. 또 '함평천지한우'는 조직발전상을 수상, 1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확보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우수상에 머문 순한한우는 대통령상 수상으로 대한민국 최고 명품의 입지를 굳혔다. /이종태기자 jilee@

VIP회원권 분양

1억5천만원 이하부터 모집

분/양/안/내

1억5천만원 이하부터 모집

문의: 062-222-7700

062-222-7701

062-222-7702